

‘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⑥장병완(국민의당·광주 동남갑)

“민생 도움 된다면 누구와도 협력”

20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은 참여정부 마지막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10년 7·28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아 국민의당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3당체제의 20대 국회에서 그의 역할은 주목받고 있다.

장 의원은 더민주 출신이지만 무조건 더민주의 경제정책을 편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 최윤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총선은 현역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이 있어 쉽지 않은 선거였다. 승리 소망은

▲압도적 지지로 지난 6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해준 것 같아 한편으로 기쁘다. 하지만, 앞으로 정권교체와 지역발전이 최선을 다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여겨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믿음직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하고, 지난 보수정권 8년 동안 무너진 국민경제와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정책전문가로서 저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우리 당을 수권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해, 정권교체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20대 국회 활동에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핵심은 일자리다. 날로 심화돼 가는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정성장 경제체제를 정착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사업 유치와 예산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

-20대 총선 결과를 평가·분석한다면



국민의당은 합리적 정책정당

보수와 진보 엇매이지 않아

수권정당 희망 심어 줘

정권교체 기반 마련할 것

▲이번 선거는 어느 당도 아닌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 투표를 통해 국민은 새누리당의 참패와 더민주의 호남 패배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당투표 돌풍 및 호남 압승이라는 절묘한 3당 황금률 구도를 만들었다. 앞으로 3당 구도 아래서는 그 누구도 과거와 같은 일방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하고 더민주가 참패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호남민은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더민주로는 정권교체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국민의당을 지지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당을 이끌 어온 데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 승리로 안 대표의 리더십과 추진력은 상당 부분 검증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 대표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당을

지켜내 그동안 물음표로 남아있던 정치력과 추진력에 대한 의문을 확실히 걷어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놓고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정동영 당선인 등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우리 당의 정체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엇매이지 않는 합리적 민생 정책정당이다. 이번 총선결과는 국민이 민생을 챙길 정당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당은 3당체제 하에서 캐스팅보터를 넣어서 민생정책 선도정당으로 향후 정국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더민주 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할 수 있다.

-야권통합에 대한 생각은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야권통합 얘길 꺼내는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지금은 야권통합을 얘기할 게 아니라 각 당이 민생정책 경쟁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3선이 됐다. 당권이나 원내대표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주위에서 많은 권유가 있다. 또 당과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설 의사가 있다. 다만, 우리 당은 아직 신생 정당이기때문에 당직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경쟁구도보다는 충분한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당이 민생정당·수권정당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이고 야권 주도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수만 있다면 당내 어떤 역할이라도 수행할 생각이다.

-더민주가 기업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조선·해운 등의 위기는 경제순환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쟁력 없는 대기업 봐주기, 일부 중소기업만 정리하는 식의 구조조정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육성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의회, 사회적약자·소상공인 조례 잇단 발의

진폐장애인 지원·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등

전남도의회 임시회(제304회) 마지막날인 26일 사회적약자와 소상공인·안전 등을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된다.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 소속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 1) 의원은 이날 전남 진폐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진폐장애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이 조례안은 진폐장애인고용촉진지원사업, 진폐장애인고용촉진지원사업 등 진폐장애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관광문화위 소속 김태균(더민주·

광양 2) 의원은 전남도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은 물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관광문화위 소속 박현호(국민의당·완도 1) 의원은 상가 등에서 임의로 설

치했던 입간판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남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입간판의 높이와 면수에 대한 규격 명시와 전기 또는 조명보조장치의 사용금지 등에 대한 내용 등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 또는 근무시간 이외, 태풍·호우 등 기상특보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로 입간판을 이동·조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의 이날 12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충행기자 galee@kwangju.co.kr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집연금 3종 세트’ 판매가 시작된 2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말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내집마련 3종 세트는 빛 가진 주택보유자와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좀 더 늘린 게 특징이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집연금 3종 세트’ 판매가 시작된 2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말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내집마련 3종 세트는 빛 가진 주택보유자와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좀 더 늘린 게 특징이다.

/연합뉴스

섬진강·탐진강 민물고기 기생충 감염실태 조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 섬진강 등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민물고기에 대한 간흡충 등 인체 유해 기생충 감염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지는 섬진강과 탐진강 등 2곳이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두 지역에서 간흡충(간디스토마)·요코가와흡충 등 제2 중간숙주인 자연산 민물고기의 기생충 감염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사에선 섬진강 지역은 참붕어·돌고기·참중고기에서, 탐진강은 돌고기·참중고기·납지리 등에서 간흡충 양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간흡충은 사람의 간에 기생하는 어류

매개성 흡충류로, 인체에 감염되면 20~30년 이상 생존하고 반복 감염 간 기능 장애 및 담관 결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두영 미생물과장은 “참붕어 등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간흡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면서 “조리한 갈·도마·행주를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음식으로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주방용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2012년 실시한 ‘제8차 전 국민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생충 발생률은 7.5%로 경북 8.5%에 이어 높게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구제역 차단 일제 소독

전남도, 내달 7일까지

전남도가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3일간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소독에 나선다.

이번 일제 소독은 전북과 충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27일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아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고 각 농장에서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농장 환경정비, 다음달 1일~7일까지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인 27일과 다음달 4일 이틀 간 농협 87개 공동방제단과 시·군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도축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경제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백원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